



막히고 사라지고...광주 벚꽃 명소 상춘객들 발 돌려

중외공원, 하늘자전거 철거 작업
운천저수지, 도시철도 공사·통제
시민 발길 끊겨 인근 상가 피해도

“만개한 벚꽃 아래서 하늘자전거를 탔던 추억이 떠올라서 다시 찾아왔는데 철거한다니 너무 아쉬워요.”

28일 오전 광주의 대표 벚꽃 명소로 꼽히는 북구 중외공원에는 벚꽃을 구경하기 위해 방문한 상춘객들로 북적였다. 연인 등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은 만개한 벚꽃 나무 아래에서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어린이 대공원의 하늘자전거 모노레일을 타기 위해 방문한 이들은 철거 작업에 아쉬운 발길을 돌려야 했다.

1981년 개장한 중외공원 어린이 대공원의 하늘자전거 모노레일은 벚꽃 명소로 유명세를 탔다. 벚꽃이 만개할 때면 긴 줄이 늘어설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하늘자전거를 포함한 어린이대공원 10개 놀이시설은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사업'으로 인해 지난해 7월부터 운영을 종료했으며 현재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부지에는 어린이를 위한 아시아 생태예술 놀이 정원이 조성되는 등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이곳에 오랜 추억을 간직했던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운암동에 거주하는 박연희씨(33·여)는 “20여년 전에 처음 가족들과 이곳에서 놀이기구를 탔었는데 부모님과 추억이 있는 공간을 아이와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방문했다”며 “특히 하늘자전거를 타면서 하늘에서 보는 풍경은 다른 어느 곳도 비교할 수 없는 멋진 명소인데 추억의 장소가 사라진다는 아쉽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수현씨(25·여)는 “학창시절 이맘때쯤이면 항상 친구들과 이곳에 와서 하늘자전거를 타면서 사진도 찍고 벚꽃 구경을 했다”며 “옛 벚꽃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명소로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아쉬워 했다.

또 다른 광주의 대표 벚꽃 명소였던 운천저수지도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지난 2020년부터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호수를 둘러싼 **하드린** 벚꽃길을 걸을 수 있어 지역민의 사랑을 받던 이곳은 2년째 생기를 잃었다. **운천저수지**를 관통하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로 **벚나무 군락**을 이루는 저수지 중앙 출입이 통제됐다.

치평동에 거주하는 이미경씨(51)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상록회관 벚꽃축제가 사라진 데다 광주의 대표 벚꽃 명소들이 하나 둘씩 예전 모습을 잃어가는 것 같아 속상하다”며 “은천저수지 물을 빼서 그런지 몰라도 벚나무가 예전처럼 풍성하지 않은 느낌이다. 하루 빨리 공사

가 마무리돼 예전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아쉬워했다.

매년 4월 모여드는 상춘객으로 '벚꽃 특수'를 누리던 상인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벚꽃이 만개할 때면 주변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왔다”며 “공사를 시작하면서 곳곳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쌓여있는 공사 자재로 인해 통행이 불편해 상춘객 발길이 줄어들면서 매출도 많이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1단계 구간 개
통 예정 시기인 2026년에 앞서 2024년 6월까지
대부분 구간의 지상공사를 마무리해 시민 불편
을 최소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혜린 기자

승용차 학림교 충격... 시내버스 추돌 19명 부상

광주·전남 교통사고 잇따라

광주·전남 지역에서 차량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28일 오전 10시35분께 동구 학동 학림교 사거리에서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좌회전 하던 중 학림교 난간을 충격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를 비롯해 차에 탑승하고 있던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27일 오후 8시20분께 영암군 삼호읍 한 왕복 3차선 교차로에서 티볼리와 제네시스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20대 티볼리 운전자와 50대 제네시스 운전자, 제네시스 동승자 4명 등 총 6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날 오후 6시 3분께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
장 인근 교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RV의 후미를
뒤따라오던 시내버스가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튕겨져나간 RV는 인도를 넘어 삼정 안으로 돌진했다.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과 운전자 등 18명과 RV 운전자 등 총 19명이 가벼운 통증을 호소했고, 이 가운데 6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버스가 앞서 달리던 승합차와의 안전 거리를 유지하지 않았고 전방 주시 의무도 태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찬기 기자

‘수천만원 금품 살포 의혹’ 장성지역 농협 압수수색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의혹이 제기된 장성군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오전 장성군 지역농협 조합장 자택,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해당 농협의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이 살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위헌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 A 조합장과 지시받고 금품을 살포한 B씨 등 2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해당 조합에서는 다수 조합원이 경찰과 선관위 측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환준 기자

‘진료기록 조작’ 허위보험금 챙겨준 치과 10곳

경찰, 위생사·환자 등 16명 송치

치과 수술 횟수를 하위로 늘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의료진·환자 154명을 수사 중인 광주 경찰이 일부 의료진과 환자를 추가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8일 생명보험사 특약 보험금 7억 4,000여만원을 반복적으로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8개 치과 병원 154명 의료진·환자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병원 1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해 의사 1명과 환자 7명을 검찰 송치한 경찰은 후속 수사를 이어가 2개 병원 의료진과 환자를 추

가 송치했다. 수사 대상 중 혐의가 확인돼 송치된 이들은 전체 8곳 중 3개 병원으로 의사 3명, 치위생사 1명, 환자 16명 등이다.

2개 병원(의사 2명·환자 48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나머지 3개 병원(의사 4명·환자 55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입건자들은 실제로는 1회에 2~3개의 치조골을 이식하는 수술을 한꺼번에 하고, 진료기록을 조작해 여러 번 수술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냈다.

환자들은 보험금을 더 받아 금전적 이익을 취했고, 병원 측은 이러한 불법을 환자 유치 수단으로 활용했다. /최환준 기자



(유)하우젠공조시스템

Samsung System Air Conditioner

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 & 가전

대량납품 전문회사

(유)하우젠공조시스템

(유)하우젠공조시스템은 학교, 아파트신축, 대형빌딩, 병원, 대형교회 등 시스템에어컨 대량납품 전문회사로 최첨단 제품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최적 맞춤설계 및 고품질 시공과 완벽한 사후 관리를 약속드립니다.

현대영인

신대

부부경향서

사광주IC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

용봉진입로

문화소통로(일방통행로-)

용봉지구대

전자랜드용봉점

KFC

대계수산

LG전자용봉점

(유)하우젠공조시스템

대표이사 신철우

대형건물용 시스템에어컨 360

대형건물용 실외기 DVM S2

영입모집

정규직 2명

프리랜서 수시

※ 남·녀 연령 무관 / 출퇴근 자율

www.shsb2b.kr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소통로 54(용봉동)

FAX. 062-515-7878

E-MAIL. shsa9999@daum.net

TEL. 062-511-0006